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9호

**COVID-19**

**기본방역수칙 강화 적용시설 확대...스포츠경기장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별개로 기본방역수칙 강화...음식 섭취 금지 등”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

“경기도 체육이 전국 표준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 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 2차 모집”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인력 확충...재출범 차원의 조직 재정비”

**불법스포츠도박**

“1000억 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적발”

“불법스포츠도박의 팽창,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 기본방역수칙 강화-적용시설 33개로 확대 스포츠경기장 등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적용과 별개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각각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이 강화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기존에 단계별로 시행되던 기본방역수칙을 단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하고, 적용 대상도 24종에서 스포츠 경기장과 카지노 등 9종을 추가한 33개로 확대한다.

새롭게 정비된 기본방역수칙은 개인방역수칙과 시설방역수칙으로 나뉜다. 이 중 개인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된다.

시설방역수칙의 경우 ▲ 마스크 착용 ▲ 출입명부 작성 ▲ 환기와 소독 ▲ 음식 섭취 금지 ▲ 유증상자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크게 7개 세부 항목으로 나뉜다.

아울러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종의 시설이 기본방역수칙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다.

중대본은 오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1주일을 현장 계도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에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처벌 등을 유예한다.

[sykim@yna.co.kr](mailto:sykim@yna.co.kr)

# 경기도 체육이 “전국 표준”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경기도체육회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도의회와 도청은 체육회를 비리 집단으로 간주, 외부로부터 혁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체육회는 문제의식을 통감하고 있으니 내부에서 개혁이 이뤄지도록 시간과 여유를 달라고 한다. 체육회 그릇된 관행에 대한 진정한 사과, 대안 모색을 위한 공동체 의식은 약했다. 지난 24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개최한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도 상호 견해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도의회는 체육계 혁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행정력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 체육회 예산 중 80%에 해당하는 주요 업무 8개를 체육회에서 도청으로 이관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기도 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도 추진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 그런데 개정 방향이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제기됐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회 위치와 업무, 지자체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게다가 도지사가 체육행정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재정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것은 민선체육회 취지에도 어긋난다. 명분만 앞세운 일방적인 관치행정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도청은 새로운 출발만 거론할 뿐, 목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육회를 관리·감독할 1차 의무는 도청에 있다. 체육회 과거 잘못에 대해 도청부터 책임을 면키 어렵다. 경기도체육회는 경기도청이 만든 체육 정책을 수행하는 곳이다. 대한체육회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체육 정책을 수행한다. 즉, 국가 체육 정책은 문체부가, 경기도 체육 정책은 경기도청이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도청은 체육회에 거의 모든 업무를 맡기면서 체육행정에 무관심했고 관리·감독도 소홀했다. 아는 게 별로 없으니 내놓을 것도 없었다.

체육회도 철저하게 환골탈태해야 한다. 도의회가 감사와 조사특위를 진행한 결과, 체육회는 지난 5년 동안 20건이 넘는 위법,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체육회는 국민이 낸 기금으로 운영된다. 철저한 자성과 대책 마련은 필수다. 체육회는 오는 6월 9일이면 법정 법인화된다. 법정 법인화는 다른 기관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짐을 의미한다. 과거 체육회는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기 수월했다. 지자체장이 당연직 회장이었고 체육회는 임의단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정 법인이 되면 지자체에 좋은 사업을 제안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산을 따야 한다. 전체 지역민을 위한 체육 정책을 만들어 수행한 경험이 적은 체육회의 대대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경기도체육회는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중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양대산맥을 이룬다. 기초지자체가 31개나 되고 예산도 서울시체육회 다음으로 많다. 학교팀, 직장운동부, 종목단체, 지역민도 많다. 경기도체육회 향후 행보를 다른 체육회들이 주목하는 이유다.

지난 24일 토론회 참석자들은 ‘말로는’ 자기반성을 했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은 “우리도 반성할 게 많다. 체육행정 혁신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종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책 입안,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원 잘못도 크다”고 했다.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회도 환골탈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강화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3자에 요구되는 자세는 과거에 대한 자성, 현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 미래 비전 도출을 위한 협업이다. 이걸 해야 경기도체육회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다. 진정한 반성은 말에 행동이 수반될 때 완성된다.

[shkim@kyunghyang.com](mailto:shkim@kyunghyang.com)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 2차 모집



**2021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연간 최대 2억 8천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 대상으로 국·내외에서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 이윤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스포츠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스포츠산업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 신청  
인터넷 검색창에 스포츠산업지원 검색

**QR 코드**

**| 접수기간 |**  
2021. 03. 29(월) -  
2021. 04. 16(금) 15시까지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2차 모집**

<b>사업 기간</b>	선정일 ~ 2021년 12월 31일	<b>지원 규모</b>	기업당 최대 2억 8천만원 (3년간 최대 8억 4천만원)
<b>지원 대상</b>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업 업력이 3년 이상, 스포츠산업 매출액 비중이 10% 이상	<b>모집 기업 수</b>	4개사 내외
<b>스포츠용품 제조업</b>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 매출액 80억 초과 1,500억 이하	<b>선정 방법 및 절차</b>	요건심사·현장심사·서류평가·발표평가 선정기업 개별 통보
<b>스포츠서비스·시설업</b>	최근 3년(2018~2020년) 평균 매출액 30억 초과 600억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단, 코로나19로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2017~2019년도  
평균 매출액으로 매출액 기준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사업 고도화
- 해외판로 개척
- 해외 마케팅

**| 문의처 |** 주관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실 시장개척팀 이예원 과장 ☎ 02-410-1546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실 시장개척팀 박수진 대리 ☎ 02-410-1544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함께 2021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국내 스포츠업계(제조, 서비스, 시설업 분야) 경력 3년 이상의 기업이다.

지원자격 중 매출액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80억 원 초과 1500억 원 이하, 서비스 및 시설업은 30억 원 초과 600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매출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는 ▲ 코로나 특별가점 부여(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10%이상 하락한 경우) ▲ 글로벌 ESG 경영방침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 서비스 인증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번 추가모집에서 총 4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 기업별 연 2억8000만 원 상당의 지원금(3년) ▲ 컨설팅, 전략 수립, 제품개발 및 개선 지원 ▲ 해외 바이어 발굴, 전시 참가 지원 ▲ 홍보영상 제작, 해외 입점 지원 등의 맞춤형 혜택을 제공 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3월29일부터 4월16일 오후 3시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anyu2@maekyung.com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 광명**  
**입주기업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광명)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힘찬 도약을 준비하는 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03.24(수) 10:00 ~ 04.14(수) 15:00**  
스포츠산업 지원홈페이지(<http://spobiz.kspo.or.kr>)에서 접수

모집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포함) -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제한 없음)		
모집규모	8개 기업 이상 (평가기준 미달 시 규모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범위 및 내용	선발규모
	도약형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예비창업자 제외)	6개 이상
	성장형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상(대기업 제외) 입주기간 동안 '창업기업'의 연도 및 업종 제외 가능 수명 가능한 기업	2개 이하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공간: 개별 사무실 입주 및 공용 회의공간·라운지 등 사용 *벨로드롬, 외부 축구장, 전시·체험관, 대강당 활용 가능</li> <li>자금확보: 스포츠편드 IR 기회 제공</li> <li>컨설팅: 투자유치·기술사업화·지원사업 연계 등 상시 컨설팅 제공</li> <li>마케팅: SPOEX, 취업박람회 등 대외행사 참여 지원, 언론보도 및 공단 온라인 채널 활용 홍보</li> <li>사업화지원: 공단보유 인프라 활용 생산제품(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li> </ul>		
주요일정	<p>모집: '21.03.24(수) 10:00 ~ '21.04.14(수) 15:00</p> <p>1차 서면심사: '21.04.21(수) (예정)</p> <p>2차 평가·발표: '21.05.06(목) (예정)</p> <p>센터 입주 협약: '21.07월 ~ '22.06월</p>		
현장사업설명회	<p>진행일시: 2021.3.31.(수) 14:00 *사전등록자만 참석 가능 신청마감: 2021.3.30.(화) 신청방법: 카카오프러스친구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추가 &gt; [광명 현장 사업설명회 참여하기] 클릭하여 신청</p>		
문의처	02-410-1593 / shwoo@kspo.or.kr		

KSPOTV 국민체육진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광명 스피돔에 새로 생기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관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국내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축한 공간으로, 기업에 필요한 법률·노무·정책 상담기능 등 모든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스포츠 관련 기업으로, 도약형(7년 미만)과 성장형(7년 이상) 분야로 나누어 모집한다.

접수는 다음달 14일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http://spobiz.kspo.or.kr))에서 가능하다. 4~5월 중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8곳의 입주기업을 선정해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은 사무공간 무상 임대와 함께 ▲광명 스피돔 관련 시설(벨로드롬, 전시체험관, 대강당 등) 이용 ▲스포츠펀드 기업설명회(IR), 투자유치 및 기술사업화 상시 컨설팅 ▲SPOEX와 같은 대외행사 참여지원 ▲온라인 마케팅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입주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사업 설명회는 29일 오후 4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사업설명회는 31일 오후 2시다.



# 문체부, 스포츠우리센터 조사인력 확충... 재출범 차원의 조직 재정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우리센터의 구조적 문제, 조사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진 스포츠우리센터 초대 이사장이 지난 19일 조사 인력 부족과 구조적 부실을 지적하며 취임 7개월만에 물러난 지 닷새만에 조직 재정비 계획을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우리센터는 '철인3종' 고 최속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한 달만인 지난해 8월 5일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출범했다. 스포츠우리센터의 태동은 2019년 1월, 조재범 전 코치의 빙상계 폭력 사건 직후다.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체육계가 아닌 독립된 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권고했고, 2020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으며, 8월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와 스포츠인권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등 4개 단체에 흩어져 있던 스포츠 비리 신고, 인권 보호 업무가 스포츠우리센터로 통합됐다.

그러나 법률 시행기한에 맞춰 서둘러 창설된 기관인 데다 각기 다른 단체에서 온 구성원들의 전문성, 조직력이 허점을 드러내며 '채용 의혹' '갑질 논란' 등 불협화음도 흘러나왔다. 정부가 센터 예산을 지난해 23억원에서 올해 5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규채용도 지난해 25명에서 40명으로 늘리며 개선을 약속했지만, 하루 아침에 세상의 모든 스포츠 폭력, 인권 사건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문체부는 향후 학교폭력 상담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 출신의 전문 조사위원 5명을 위촉해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 기간(3월5일~4월30일)을 운영하고 그동안 안팎으로 지적받았던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감사교육원 등 유관 전문기관의 위탁 교육으로 조사기법 등을 전수한다고 밝혔다. 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2명을 포함한 6명을 4월 새로 임용하고, 상반기 내 한차례 추가채용을 통해 조사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8명을 증원해 조직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의 스포츠우리센터 조직 재정비 관련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ky4us@sportschosun.com](mailto:sky4us@sportschosun.com)

# 1000억 대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 적발



해외에 컴퓨터 서버를 두고 국내와 해외에서 1000억 원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필리핀과 국내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주범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잠적한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자 2명과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한 일당들도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일본에 각각 도박 서버와 경유지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필리핀과 한국 등지에서 도박 운영 사무실을 차린 뒤 도박 홍보사이트를 통해 1800여 명의 회원을 끌어들이 불법 영업을 벌였다.

A 씨는 도박사이트로 거액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사회 선후배 관계인 지인들을 끌어들이 운영에 가담하게 했다. 경찰은 A 씨 등이 운영한 국내 사무실과 은신처 등을 압수수색해 여행용 가방에 숨겨둔 현금 14억 원을 압수했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과 금고 등에서도 4억 6000만 원에 달하는 5만 원권 현금다발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이어지면서 불법 도박사이트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판단해,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ngang@busan.com](mailto:hangang@busan.com)



### 불법 스포츠 도박의 팽창,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합법 사행 산업의 약 4배 규모라고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단속과 규제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사행 산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합법 사행 산업의 관리, 감독에만 집중하고 있다. 불법 사행 산업 단속 규제는 신고 의뢰, 포상금 지급, 감시-신고 센터 운영 등에 국한돼있다.

이에 따라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은 점점 커지고, 청소년 참여 증가와 병적 도박자 양산이라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른 2차 범죄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것일까. 먼저 합법과 달리 불법 스포츠 도박은 모바일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환급률이 매우 높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 여기에 코로나19 악재까지 덮쳤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도박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반면, 합법 스포츠 도박에 대해서는 매출 총량 준수를 위한 인위적 매출 저감 정책을 펼친다. 베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돼있고, 대상 경기 종목도 5개 뿐이다. 발행 횟수도 합법은 연간 1000회차인 반면, 불법은 제한이 없다. 발매 마감 시간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결국 불법 스포츠 도박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합법 사행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베팅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처다.

사행 산업 비대화가 사행 심리를 확산시키는 요인도 있지만, 불법 도박이 합법 사행 산업에 비해 2배 이상 도박 중독 유행률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에 합법 사행 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불법 이용자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해야 한다. 환급률을 상향하고, 온라인 구입 금액 기준도 1회 5만원에서 기존 10만원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모바일 발매 채널을 허용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불법 도박 근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감위에게 단속,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도박 이용 계좌 거래 정지,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권한 등 신속하고 현실성 있는 차단 기능을 추가해야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시킬 수 있다.

[awesome@sportschosun.com](mailto:awesome@sportschosun.com)

# 주간 스포츠 소식

“탄소유발 기업 스포츠 후원 계약 중단하자”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5007>

‘스포츠산업 활성화’ 市체육회-체육진흥공단 맞손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733>

스포츠윤리센터, 긴급 이사회 개최... "조사 전문 인력 시급"

<https://www.hankyung.com/sports/article/202103232915Y>

대한하키협회 '서로 존중하는 품격의 스포츠'...클린 하키 캠페인

<https://www.hankyung.com/sports/article/202103221470Y>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잡았더니 현금 18억원이 '우수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324/106059228/1>

[거꾸로읽는스포츠] 코로나19 시대의 수영장 이용

<https://news.imaeil.com/InnerColumn/2021032209174855917>

[단독] 코로나 국내스포츠산업 피해 상황 최초 공개...그렇다면 대책은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3281112003&sec\\_id=530101&pt=nv](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3281112003&sec_id=530101&pt=nv)

"사람 때려야 훈련? 그럼 엘리트 스포츠 접어야지" 이수정 교수 소신발언 [대화한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327000092>

스포츠경기장 등 상시 음식섭취 금지...기본방역수칙 강화(종합2보)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6\\_0001385052&cID=10201&pID=102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26_0001385052&cID=10201&pID=10200)

메르세데스벤츠, 스포츠 유망주에 장학금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2337531>

KUSF, 챔피언 트로피 공개...'대학스포츠 모든 것 담았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72646628987256&mediaCodeNo=258>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